

私立大學의 豫算 편성과 집행

— 亞洲大의 경우 —

孫 承 堯

(亞洲大 機械工學科)

현재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私立 依存度는 7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체로 國立大學 위주의 偏重支援을 하고 있으며, 반면 學生選拔이나 納入金과 같이 教育財政과 직접 관련된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는 國立과 私立의 구별 없이 획일적으로 統制하고 있기 때문에 私立大學에서의 財政運營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 序 論

필자가 本題 분야에는 門外漢인 單純 工學徒에 불과하면서도 本稿를 쓰게 된 것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亞洲大學校의 財政運營이 우리나라 私學機關 중 보기드문 獨立的 財政構造라는 지난 몇 년간의 大學財政評價 결과에 따라 亞洲大學校의 經驗을 그저 소개하려는 데 그 동기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記述體系나 論理가 전혀 아마추어적이라든가 양해있기를 바란다.

亞洲大學校는 1977년 3월 大宇學園財團이 인수한 이후 대학의 豫算編成과 그 執行에 있어 自律性을 보장해 오고 있다.

大宇學園財團은 인수 초기에는 주로 校地買入, 建物新築 및 각종 設備, 獎學金, 研究費 등에 직접 지원을 해 왔으며, 근자에는 IBRD 借款에 의한 實驗機器購入費와 蹴球部運營費 및 재단의 法定支援金이 轉入金의 형태로 지원되어 '85년

현재 누계총액 170억 원에 이르고 있고, 建物新築 등 施設費는 별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산의 編成과 統制는 기획실에서 그리고 執行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本大學은 현재 학생수 5,000명 정도의 小規模 綜合大學이지만 學生登錄金만으로 모든 財政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설립 13년에 불과한 日淺한 歷史와 더불어 근래에 계속되어 온 學科 신설, 大學院 강화 등으로 施設擴充, 研究活性化, 教育內實化 등 상당한 投資要因이 발생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財團의 针对性 支援으로 무리 없이 해결되어 왔다.

그러나 亞洲大學校는 理工學系 학과 및 학생수가 60%를 상회하는 구성으로 인해 教育運營費나 施設費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財政負擔 要因을 안고 있다. 이러한 亞洲大學校의 1985년도 豫算規模는 校費 및 期成會費 회계를 합쳐서 63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表 1〉 歲入構成比

(단위 : 億원)

구분	'85(%)	'84(%)	'83(%)	'82(%)	'81(%)
納入金	55.7(87.4)	47.9(82.1)	43.5(69.5)	35.9(81.8)	21.1(74.6)
財團轉入金	3.7 (5.9)	4.1 (7.0)	3.4 (5.4)	2.7 (6.3)	4.9(13.5)
기타	4.2 (6.7)	6.3(10.9)	15.7(25.1)	5.3(11.9)	4.3(11.9)

〈表 2〉 歲出構成比

(단위 : 億원)

구분	'85(%)	'84(%)	'83(%)	'82(%)	'81(%)
人件費	32.6(51.2)	27.4(47.1)	25.8(41.3)	21.5(44.9)	19.8(54.5)
管理運營費	9.4(14.8)	8.0(13.8)	7.0(11.2)	6.4(14.6)	5.1(14.0)
學生經費	14.5(22.7)	13.4(23.0)	10.8(17.2)	8.3(18.8)	6.1(16.8)
資本的經費	3.5 (5.5)	6.5(11.2)	15.2(24.4)	5.7(12.9)	2.6 (7.0)
其他經費	3.7 (5.8)	2.9 (4.9)	3.7 (5.9)	2.0 (4.7)	2.8 (7.7)

2. 財政 現況

1) 歲入

위의 〈表 1〉에 亞洲大學校가 綜合大學校로 출범한 1981년 이후인 지난 5년간의 歲入構成을 표시하였다.

納入金の 構成費는 69.5~87.4%를 점하고 있어서 年度別로 상당한 기복을 이루고 있지만 私立 綜合大 平均 89%¹⁾에 비하면 낮은 편이며 순수한 財團轉入金도 전체 예산의 5.4~13.5%를 차지하고 있어 設立者의 계속적 出捐이 학교 재정에 큰 비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표에서 기타는 研究收入, 國庫支援金, 利子收入 등으로 負債性 收入이 전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IBRD 教育借款償還金은 財團轉入金 속에 포함되어 있다).

2) 歲出

〈表 2〉에는 지난 5년간의 歲出構成比를 정리하여 놓았다.

歲出豫算은 전체적으로 그 틀이 定型을 이룬 것으로 생각되며 약간의 기복이 있는 것은 그해 그해에 따른 政策이나 상황의 反映이라고 생각된다.

각 항목별로 일별해 보면 우선 人件費는 '85

년에 다소 그 占有率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는 종합대르서의 教授確保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대체로 安定勢이다. 管理運營費는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예산 규모는 작지만 綜合大로서 갖추어야 할 諸 機能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理工系가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본 대학에서 學事管理의 철저와 研究 活性化를 추진하는 最小 費用이 그 정도 수준인 때문으로 생각된다.

學生經費는 獎學金 규모 확대에 따라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資本的 經費는 教育·研究用 또는 事務用 機器 구입 및 圖書費와 일부 構築物 측조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산 규모에 따라 다소 변동폭이 큰 편이다.

여기서 構築物 측조는 건물 등 대형 시설비가 아닌 小規模의 정구장 시설이나 기계·전기 설비 또는 부분적 造景費用만이 포함되었으며, 序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建物新築 등 大型 建設工事は 財團會計에서 별도로 처리되어 왔다.

기타 경비는 入試經費, 校內研究費, IBRD 借款償還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표에서 보는 構成比率는 文敎部의 豫算編成指針을 거의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있다. 다만 관리운영비 부분이 10%線을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은 5,000명밖에 안 되는 學生數(사립 綜合大 平均 12,000명선)로써 여러 가지 綜合大學으

1)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4學年度 大學財政·經營評價報告書.

로서의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3. 大學財政과 豫算의 編成

1) 大學財政

대학의 教育財政은 근본적으로 公經濟活動으로서 教育活動의 支援을 목적으로 教育經費를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教育財政의 운영은 一般財政의 운영과는 다른 몇 가지 特殊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육활동은 非營利的인 것이 특징이다. 教育事業은 본질적으로 私企業과 같은 利潤의 추구가 經營目標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투입된 비용은 이윤 또는 직접적인 利益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사회의 發展이나 公共의 이익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非營利라 해서 단순한 名分 추구나 慣行 일변도여서는 안 될 것이다. 效率의 제고, 經濟性 향상, 한정된 제정으로 성과를 極大化하려는 의도가 집결되지 않으면 教育財政은 건전해질 수 없을 것이다. 민주국가에서의 고등교육은 機會均等의 原則에 따라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와 教育負擔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教育財政의 운영은 公明正大하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교육활동의 多樣性과 安定性이 유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특히 執行에 있어 公明正大性이 입증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재정과 다른 教育財政의 特殊性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교육재정에 있어서 機會均等, 適應性, 融通性, 思慮性 등의 原理라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私立大學의 財政調達は 주로 學生納入金으로 구성되는데, 납입금의 구조나 규모는 直·間接 教育費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70년대 이후의 고등교육인구의 급격한 量的 膨脹에 따른 教育環境·施設費의 염증이 私學財團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었다. 결국 사학은 이러한 비용에 교육비를 할애함으로써 교육의 質的 低下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비용을 負債로 충당함으로써 私學의 財務構造를 불안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비하여 國立大學들은 施設費를 國庫로 해결해 온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시설 수준의 隔差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私學財政의 調達이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내 주는 한 예로서 政府가 教育借款 도입을 상당기간 계속해 오고 있음을 들 수 있다. 私立大學에서의 借款 需要나 使用額은 국립대학과 현격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學生數 구성은 사립이 국립의 2.5배를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私立에서는 교육차관에 대한 需要가 없어서가 아니라 償還能力의 限界性 때문에 借款資金의 사용을 상대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래 私學에서는 財團이 이러한 財政需要를 감당해 주어야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 형편이고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教育財政의 一般原理에 직접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의 公概念, 교육재정에서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汎國家的 解決方案 모색이 절실하다.

2) 豫算의 編成과 執行

대학 운영에 있어 亞洲大學校는 그 獨立·自律性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自他가 공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私學들이 이 정도의 위치에라도 와 있느냐에 대하여는 아직 確信이 서지 않으며, '84年度 大學財政 評價報告書에도 이 점이 지적되고 있다.

豫算의 編成은 한정된 재정의 單純 分割이 아니라 合目的·效率·公平性에 바탕을 둔 여론의 수렴으로 유기체를 통합해 가는 과정이며, 節約 體制를 生活化해 가고 承服과 화합으로 큰 成就度를 기약하는 단계이며 大學의 오늘로부터 不確實한 내일을 보다 바람직한 미래로 창조해 가는 道程의 設計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豫算編成과 執行은 편성자의 公平·신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執行者의 參與·協同·節約·目標追求의 熱意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發展戰略이나 教育目標을 실현하기 위해 學內的 輿論을 收斂하고 이에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자의 目標追求 意

識이 투철하지 않으면 집행 결과는 당초의 편성 의도와는 거리가 먼 結果를 초래하기 쉽다.

大學豫算에서 흔히 制度의 硬直性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年間 2회의 追更 編成이 허용되고 豫備費를 활용한 결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불만은 운용에서 融通性을 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것 같다. 融通性이 變則이나 放從으로 오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교육재정 운용의 궁극 목표를 달성하는 效果의이고 和合的인 手段으로서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집행자의 良識과 經綸이 더욱 강조된다 할 것이다.

4. 財政運營의 문제점

現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私立 依存度는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대체로 國立大學 위주의 偏重支援을 하고 있으나 學生選拔이나 納入金과 같이 教育財政과 직접 관련된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는 국립과 사립의 구별 없이 劃一的으로 統制하고 있기 때문에 私立에서의 財政運營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 가지 국내외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國庫를 私學支援에까지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私學 스스로도 財政難을 타개할 수 있도록 自律性을 부여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納入金 策定에 있어서 實質的 教育費의 반영보다는 一律的인 規制線으로 政策의 次元의 고려만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大學經營 자체를 왜곡케 하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一例로 人文社會系학과는 教育運營費가 적게 든다는 통념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확고한 教育目標의 구현보다는 經營收支 改善의 일환으로 新設對象學科로서 인문사회계를 선호해 온 탓으로 전국적으로 人文社會系定員이 自然系定員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현실은 國家 發展計劃의 추진이나 社會雇傭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政府도 근자에 이르러는 이들 矛盾을 시정하려는 政策方向을 피력하고 있는 것은 晚時之嘆이 있으나 그래도 지극히 환영할 일이다.

1981년 이후로 工業系 사립대학에 國庫支援金이 交付되어 오고 있는데 그 규모에 있어서 私學의 實質的 所要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使用目的도 자체 充當金을 포함하여 機器購入 등에 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教育運營의 硬直性을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納入金 負擔額은 선진국의 20~3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의 早期現實化 추진이 미칠 社會的 衝擊이나 國家政策 수행에의 영향 때문에 實質教育費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의 引上이 불가능하면 점진적 방법을 취하면서 이 기간 동안은 國庫支援이나 또는 制度的 代案을 마련하여 現實化 단계까지 이끌어 가는 政策的 配慮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5. 結 語

亞洲大學校는 1977년 大宇學園財團의 설립 이후 財團과 學校經營이 완전 분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財團으로부터의 財政支援은 經常運營과 施設費를 포함하여 持續的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는 건전한 私學財政運營의 모델임을 스스로 自負하고 있다.

企業利潤을 교육을 통해 보다 차원 높게 國家社會 발전에 환류시키겠다는 財團設立者 金宇中大宇會長의 투철한 建學精神이 이러한 실현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私學財政에 있어서의 關鍵은 근본적으로 제단과 학교 경영자간의 積極的 理解와 信賴·協助를 바탕으로 구체적 教育目標을 달성하려는 大學人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노력은 周邊與件 조성과 國家政策의 지원 없이 건전하게 발전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特性을 지니고 있는 公經濟活動의 일환이기 때문에 대학의 教育財政은 건전한 運營의 自律性이 이루어지도록 보호·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自律性이 큰 私學에 비해서는 더욱더 活性化되고 건전하게 되도록 조장하고 公共性을 살리지 못하는 不實私學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指導統制를 통하여 개선되도록 하는 選別的 統制와 支援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